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통제 귀인과 활동의 요구-조절-지지 정도 및 통제 전략이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ntrol Attribution, Demand-Control-Support Model,
and Control Strategy on Elderly Workers' Subjective Well-Being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조윤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Yoon Joo Ch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 문헌 |

<Abstract>

This study tested the path model with regard to how certain variables (control attribution, demand-control-support of activity, and control strategy) affected the elderly workers' subjective well-being (swb). In the path model, the exogenous variables wer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ttribution. We used demand-control-support of activity, and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strategies as mediating variables. The endogenous variable was each elderly worker's swb. Study participants were 205 elders participating in an "education activity". We us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o examine data collected from structured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Path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s: First, secondary control strategy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participants' swb but internal control attribution, demand of activity, and support of activity also positively affected participants' swb. Second, internal control attribution indirectly affected the participants' swb. Finally primary control strategy negatively affected on the participants' swb.

주제어(Key Words) : 노인 일자리 참여자(the elderly worker), 통제 귀인(control attribution), 요구-조절-지지 모델(demand-control-support model), 통제 전략(control strategy),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Corresponding Author : Yoon Joo Ch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49-1, Seongbuk-gu, Seoul, 136-742, Korea
Tel: +82-2-920-7620 Fax: +82-2-920-2098 E-mail: bijucho@sungshin.ac.kr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 - 2008 - 331 - C00293).

I. 서론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물리적인 수명이 연장되었고 장수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남녀 각각 76.5세, 83.3세로 보고되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09). 그러나 이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4.1세로 조사되었는데(통계청, 2006), 인간의 고통 중 무위고란 말도 있듯이 은퇴 이후 사망까지 20년 이상의 짧지 않은 시간의 공백을 채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더욱이 유례없는 저출산의 문제에 봉착한 우리 현실을 볼 때 고령 인구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이미 인구 고령화를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온 서구에서는 노화를 논할 때에도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 또는 '생산적인 노화(Productive Aging)'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Baltes & Baltes, 1990; Rowe & Kahn, 1987).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성공적이거나 생산적인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어서, 삶의 만족도나 자아 존중감, 지각된 통제감 등의 주관적인 지표가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윤진, 1995). 개인의 삶의 질은 건강과 수명, 경제적 생활 수준, 직업 기회와 직업 선택의 다양성, 교육 기회와 교육 여건, 문화 향유의 기회,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 지표를 개인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객관적인 접근보다는 주관적인 접근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 변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성공적인 혹은 생산적인 노화에 있어 노인을 능동적인 주체로 간주할 때 활동 이론의 주장이 뒷받침된다. 활동 이론은 노후의 삶의 만족과 안녕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실된 활동을 대체할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에 포기해야 하는 기존의 사회적 역할을 대신하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Havighurst & Albrecht, 1953). 노인일자리라도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이에 대해 주위의 반응이 호의적이라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유지되거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창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져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활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노인을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방법은 대표적인 생산적 활동으로 통용되는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노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노년기 생산적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실시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연구 결과가 실태 조사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이다. 즉, 경제 활동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외에 보수 수준, 본인의 선택 여부, 적성과 권한 정도, 가족의 지지 등이 고려되어 왔다.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경제 활동에서 보다 확장된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참여 빈도, 할애 시간 등 외형적인 조건을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활동의 특징(character)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거나 모델에 기초하여 접근한 경우는 드물다.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활동의 주체가 성장보다 쇠퇴가 우세한 노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참여 노인의 내적인 기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례로 활동시 요구도나 조절, 지지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개인의 귀인 성향에 따라 지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내적 통제를 많이 하는 개인은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이를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지각할 수 있고 반면 외적 통제의 성향이 강한 개인은 요구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제 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외적 조건의 변인 위주여서 참여자의 내적인 기제를 고려하여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활동 과정상에 있어 대처 방법을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활기차고 능동적인 노화라는 구호 아래 제안된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 4대 핵심 과제로 선정되어 200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앞서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노인이지만 자신이 수행할 역할이 있는 것이 적응에 긍정적이라는 활동 이론의 주장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만으로 삶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 역할이 유스트레스원으로서 또는 디스트레스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나 전략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의 제한점과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는 이것이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아 운영 효과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으며 결과 역시 탐색적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활동의 특징을 중심으로 '요구-조절-지지 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국외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임금 노동에 이용되어 왔으나 국내에서 이를 활용

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의 실태와 더불어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변인과 외적 변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자 한다.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노인의 통제 귀인과 통제 전략을, 외적 변인으로는 활동의 ‘요구-조절-지지 모델’을 선정하여 이 변인들이 활동 참여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화를 위한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계획하는데 기초 자료를 수집, 노인의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통제 귀인

1) 통제 귀인의 정의

Kelley(1967)는 귀인 이론을 한 개인이 어떤 사건들을 특정한 환경 조건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과정에 관한 이론이라 하여, 귀인(attribution)을 “관찰자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원인을 지각, 추리,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이선민, 2006, 재인용). 특히 Rotter(1966)는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의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통제 소재란 “개인이 자신의 행동 결과에 따라 수반되는 강화를 능력과 같은 내적인 것의 결과로 지각하거나, 운과 같은 외적인 것의 결과로 지각하는 신념”이라 하였다. 즉, 통제 소재를 내적(internal)인 것과 외적(external)인 것, 두 차원으로 설정하고 어떤 일이 자신의 행동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개인은 내적 통제 소재를 지닌 것이다. 반면 자신의 행동과 그 후에 나타난 결과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기고 그 일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면 그 개인은 외적 통제 소재가 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면적인 사고에 대해 Levenson(1974)은 한 개인에게 내·외의 통제 성향이 병존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외적 통제 소재를 ‘타인 지향’과 ‘우연 지향’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 귀인을 기존의 ‘내적 지향’과 더불어 ‘타인 지향’과 ‘우연 지향’ 등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내적 지향’은 ‘어떤 사태 및 결과의 원인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타인 지향’은 ‘어떤 사태 및 결과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 그리고 ‘우연 지향’은 ‘어떤 사태 및 결과의 원인을 우연히 일어난 것 또는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2) 통제 귀인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통제 소재를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으로 구분할 때, 이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Solomon, Mikulincer, & Avitzur, 1988), 자신의 행동이 외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지각하는 경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다 강력한 자기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서도 귀인 방식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회 관계내에서의 조화를 중시하고 자기 억제를 추구한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자신의 성공은 운 등의 외적 상황의 탓으로 돌리지만 실패는 개인 능력 부족으로 돌리는 경향편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성공은 능력과 같이 내적 성향으로, 실패는 상황 탓으로 돌리는 자기본의적 편향을 보인다.

또한 제공받는 지지를 지각함에 있어서도 외적 통제보다 내적 통제의 성향에 근접한 사람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유도하고 자신이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평가하였다(Lefcourt, Martin, & Saleh, 1984). 따라서 활동의 요구 정도나 조절 정도, 지지 정도는 개인의 통제 귀인에 따라 지각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활동의 특징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활동의 요구-조절-지지 모델

1)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정의

활동을 수행하는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과 과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 왔으며, Karasek(1979)의 ‘요구-조절 모델(Demand-Control Model)’이 대표적이다. Karasek(1979)은 활동의 요구 정도를 “활동시 경험하는 시간 압력, 활동량의 과중, 역할 갈등 등”으로, 활동의 조절 정도는 “결정권의 허용 정도로 자신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활동의 특징이 참여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뿐 아니라 스트레스원으로 작용될 지를 결정하는데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은 개인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 활동이 요구하는 정도와 개인이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참여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 또한 스트레스원과 개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중재하는 변인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스트레스 과정에 대처 자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Johnson과 Hall(1988)은 여기에 ‘지지(support)’를 추가하여 ‘요구-조절-지지 모델(Demand-Control-Support Model)’로 확대하였다. 이 때 지지란 “상사나 동료, 배우자·가족,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받는 격려로 인해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이들은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조절 정도는 낮으며, 활동에 대한 주위의 지지 정도가 낮을 경우, 안녕감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고립 긴장 가설'이라 명명하였다.

2) 요구-조절-지지 모델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요구-조절 모델'을 적용하여 활동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조절 정도가 낮을 때, 혈압 상승이나 뇌졸중, 심근 경색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 Hall, 1988; Theorell, Tsutsumi, Hallquist, & Reuterwalle, 1998). 신체적 측면 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고,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낮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Barnett & Brennan, 1995; Beehr & Drexler, 1986; Karasek, 1979; Van der Doef & Maes, 1999).

'요구-조절-지지 모델'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은 '고립 긴장 가설'을 검증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결과 대부분 이 가설이 지지되었다.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가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활동의 요구 정도와 조절 정도에 비해 지지 정도의 영향력이 더 컸다(Fletcher & Jones, 1993; Heaney, Price, & Rafferty, 1995; Roxburgh, 1996; Schaubroeck & Fink, 1998).

최근에는 '저긴장 활동'이 수행자의 정신 건강에 이롭다거나(조윤주, 2008; Lerner, Levine, Malspeis, & D'Agostino, 1994), 개인이 '능동적인 활동'을 할 때 자기 계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Dollard, Winefield, & de Jonge, 2000; Van Yperen & Hagedoorn, 2003). 이와 같이 활동이 수행되는 상황적인 변인으로 '요구', '조절', '지지'라는 특징을 포함하여 이것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변인은 이들의 인성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외부 자극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에 따라 지각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통제 전략

1) 통제 전략의 정의

통제 행동에 관한 이론들은 개인이 자신의 발달에 적합하게 능동적으로 조절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Heckhausen과 Shulz(1995)는 통제 전략을 '일차적 통제(primary control)'와 '이차적 통제(secondary control)'로 구분하였고, 개인은 두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환경과 자신을 조절함으로써 적

응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차적 통제'란 "외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와 바람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려는 개인의 시도"로 정의되며, '이차적 통제'란 "자신의 동기나 정서, 내적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긍정적적인 재평가, 하향 비교, 목표 재설정 등이 포함된다.

2) 통제 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Heckhausen과 Shulz(1995)는 생애 통제 이론(Life-span theory of control)에서 개인은 자신의 발달 상태를 조절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여부가 성공적 발달, 즉, 노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환언하면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 전략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매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년기에 근접할수록 심리사회적, 신체적 제한점이 증가하므로 개인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통제 전략의 사용을 변화시키면서 적응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노인일수록 이차적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그러한 경우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곽지현, 이민규, 2006; Heckhausen & Shulz, 1995). 또한 Peng과 Lachman(1994)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은 청년층에 비해 이차적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자율성, 자기 수용, 삶의 목표 등 주관적 안녕감의 구인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차적 통제 전략 사용 역시 증가하고 안녕감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일관되는 양상이지만 Worch, Heckhausen과 Lachman(2000)의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개인은 일차적 통제와 이차적 통제를 생애 전반에 걸쳐 이용하며, 조절 결과가 성공적인 노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노인이 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 통제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며, 이것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것이다.

4. 주관적 안녕감

1) 주관적 안녕감의 정의

노인이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여 양질의 삶을 사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념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때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 성원이 자신의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객관적인 조건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객관적인 접근보다는 주관적인 접근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인정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Diener(1984)는 이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로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안녕감'이라 하였고, Veenhoven(1991)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종합하면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인 측면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인 측면인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요소를 지니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내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Diener, 1984; Eid & Diener, 2004; Veenhoven, 1991).

2)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노인의 취업 상태와 삶의 만족도간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 Herzog와 House(1991)는 일에 대한 선택권이 많고, 일의 일과 조정이 자유로운 경우, 신체적·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Parnes와 Sommers(1994)는 고령의 노인이 퇴직 시점이 지난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요인을 규명한 결과, 건강 상태와 일에 대한 헌신 여부, 퇴직 비선호, 그리고 교육 수준과도 정적으로 연관이 있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인데, Riddick(1985)의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취업중인 여성이 은퇴한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사기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하는 노인에 대한 연구는 초기로 누적된 결과물이 많지 않다. 윤희열(1996)은 재취업 노인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일수록,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이직 횟수가 적을수록,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노인일수록, 직업이 노인의 적성에 맞을수록, 원하는 직종에 종사할수록, 자녀들이 노인의 취업에 대해 찬성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노인 인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박정희, 2003; 신동면, 양기근, 2003)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6)의 조사에 따르면 미취업 상태인 65세 이상 노인의 11.8%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서도 '일을 통한 활기찬 노화(Active Aging)'라는 목표 아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표방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 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 시장에서 제외된 일자리'로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06).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시행된 기간이 짧은 관계로 축적된 연구들은 소수이다. 이와 가까운 연구로서 서양열(2004)은 전라도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의 참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일

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고, 참여 만족도도 80%로 높았다. 그러나 참여 소득에 대해서는 불만족의 비율이 반수를 상회하였다. 이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로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7)의 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로는 참여 전후 개인 소득이 약 8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한 노인들의 노동이 육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이어서, 사업에 참여한 노인이 비참여 노인보다 의료비를 1년에 18만원 정도 덜 사용,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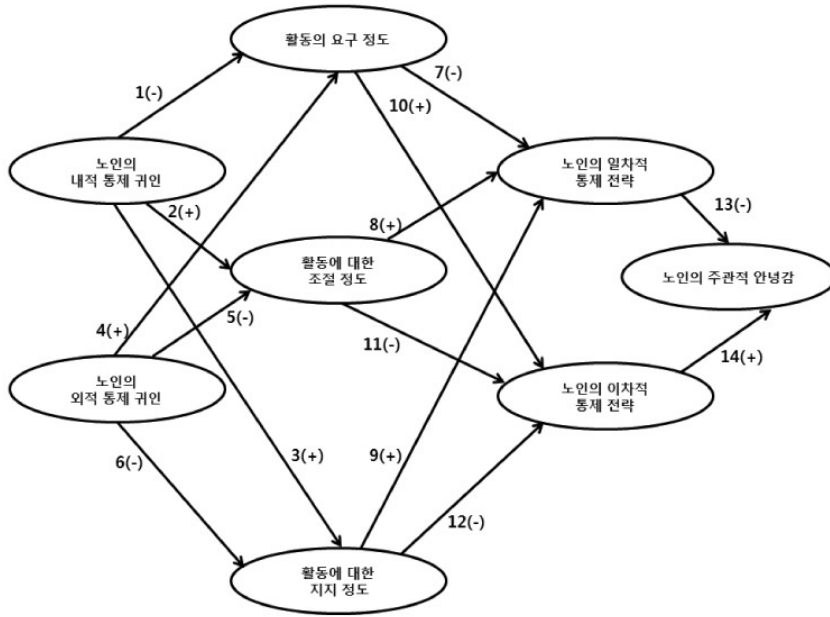
이상의 선행 연구 고찰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1) 노인의 통제 귀인

- (1) 노인의 내적 통제 성향은 활동의 요구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노인의 내적 통제 성향은 활동의 조절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노인의 내적 통제 성향은 활동의 지지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노인의 외적 통제 성향은 활동의 요구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 노인의 외적 통제 성향은 활동의 조절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6) 노인의 외적 통제 성향은 활동의 지지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활동의 요구-조절-지지 정도

- (7) 활동의 요구 정도는 노인의 일차적 통제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8) 활동의 조절 정도는 노인의 일차적 통제 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9) 활동의 지지 정도는 노인의 일차적 통제 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0) 활동의 요구 정도는 노인의 이차적 통제 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활동의 조절 정도는 노인의 이차적 통제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활동의 지지 정도는 노인의 이차적 통제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이론적 모형

3) 노인의 통제 전략

- (13) 노인의 일차적 통제 전략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노인의 이차적 통제 전략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와 같이 연구 가설에서 제기한 변인들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¹⁾

2.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교육형’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205명이었다. 고령자의 경제 활동으로 여러 유형이 있으나, 활동 기간이나 직종 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한정하였다. 노인 일자리는 교육이나 의료, 복지, 환경,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주로 비영리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큐베이타형(시장형1, 2)’, ‘인력파견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이 중에서 참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교육형’에 종사하는 노인으로 제한하였다. ‘교육형’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아동·청소년·노

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 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 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1-3세대 강사, 노-노 교육 강사, 취미 활동 강사, 체육(건강) 활동 강사, 문화재 해설, 숲 생태 해설 등이 해당된다. 이들을 섭외하기 위해 노인 복지관내 취업 알선 센터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 지원 센터 등을 유의 표집하여 선정, 기관의 협조를 구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교육형’에 참여하는 노인 5명을 유의 표집하여 예비 조사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고, 본 조사는 일 대 일 면접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3. 연구 도구

1) 노인의 내·외 통제 귀인

노인의 통제 귀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Levenson(1974)의 척도 20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적 지향’ 8문항, ‘타인 지향’과 ‘우연 지향’ 각 6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 중 ‘내적 지향’ 문항의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점부터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귀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타

1) 숫자는 가설 번호이며, (+)(-)는 정적, 부정적 관계임.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들의 직접적인 경로 표시는 생략하였음.

인 지향'과 '우연 지향' 문항은 합하여 산출하였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2점부터 4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 귀인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 α 는 내적 귀인 .742, 외적 귀인 .711이었다.

2) 활동의 요구 정도

활동의 요구 정도는 Karasek(1979)의 '직무 내용 질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로 측정하였다. 활동의 요구 정도란 시간 압박, 활동의 과중, 역할 갈등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에 쫓겨서 빨리 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의 양이 많다', '활동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상반되는 요구를 받는 적은 없다'의 3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점부터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의 요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중 '활동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상반되는 요구를 받는 적은 없다'는 역채점을 하여 합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704였다.

3)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란 방법, 시간 등 결정 권한에 관한 것으로 Wall, Jackson, Mullarkey와 Parker(1996)의 '직무 조절 척도(Measure of Job Control)'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내가 원할 때 실 수 있다', '나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내가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의 3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점부터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 α 는 .731이었다.

4)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ng, Mattimore, King과 Adams(1995)가 개발한 '근로자를 위한 가족 지지 척도(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의 정서적 지지에 관한 4문항, 도구적 지지에 관한 4문항 등 총 8문항을 이용하였다. 정서적 지지에 관한 문항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물어 본다',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잘 들어 준다',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활동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할 때 가족은 나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 준다'이다. 도구적 지지에 관한 문항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다', '활동을 하느라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준다', '활동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돈이나 교통편 등을 언제나 제공해 준다', '활동 때문에 바쁠 때 집안 일 등

다른 일을 대신 해 준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중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점부터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는 .825였다.

5) 노인의 일차적·이차적 통제 전략

노인의 통제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Peng과 Lachman(1994)이 개발한 '통제 전략(Control Strategie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차적 통제 전략으로 '목표 추구의 지속성' 4 문항, 이차적 통제 전략으로 '긍정적 재평가' 3문항과 '기대 낮추기'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5척 점도이나 응답의 중앙 집중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4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 α 로서 일차적 통제 전략은 .778, 이차적 통제 전략은 .732였다.

6)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정서적 요인은 단기내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인지적 요인은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만족도로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1) 긍정적·부정적 정서 척도(Affective Scale)

노인의 정서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Warr, Barter와 Brownbridge(1983)가 제작한 긍정적·부정적 정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정서 9문항과 부정적인 정서 9문항으로 구성되는데 각 영역을 합산한 후, 긍정적 정서 경험에서 부정적 정서 경험을 제한 값을 정서적 안녕감 점수로 간주하였다. 이 때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 α 는 긍정적인 정서 .763, 부정적인 정서 .798이었다.

(2)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5문항으로 7점 척도이나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내용은 '대체로 나의 생활은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비슷하다', '나의 생활 여건은 아주 좋다',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원했던 중요한 일들을 이루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이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점부터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857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각 측정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구하였으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관련 변인들간의 경로 모형을 검증하고자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01명과 104명으로 거의 동수를 차지하였다. 연령의 경우 60세부터 최고 87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69.7세였다. 응답자의 54.6%가 60대로 이들의 비중이 높기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N = 205)

변인	구분	명(%)
성	남	101(49.3)
	여	104(50.7)
연령	60~64세	29(14.1)
	65~69세	83(40.5)
	70~74세	56(27.4)
	75~79세	29(14.1)
	80~84세	7(3.4)
	85세 이상	1(0.5)
결혼 상태	미혼	2(1.0)
	기혼	156(75.1)
	별거	2(1.0)
	이혼	2(1.0)
	사별	42(20.4)
	무응답	1(0.5)
이전 직업	전문직(의사, 간호사, 약사, 법조인, 교육자, 연구원 등)	58(28.3)
	관리직(5인 이상 업체 부장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등)	27(13.1)
	사무직(6급 이하 공무원, 과장급 이하 회사원 등)	26(12.6)
	생산직(가내 수공업, 생산직 노동자 등)	10(4.9)
	단순노무직(청소용역, 파출부 등)	6(2.9)
	영업직(각종 세일즈 등)	2(1.0)
	자영업(종업원 4인 이하의 가게나 업소 운영)	20(9.8)
	서비스직(백화점의 종업원 등)	1(0.5)
	농업	3(1.5)
	전업주부	48(23.4)
	기타	4(2.0)
주관적인 경제 상태	매우 어렵다	13(6.3)
	어려운 편이다	96(46.8)
	좋은 편이다	92(44.9)
	매우 좋은 편이다	-
	무응답	4(2.0)
건강 상태	매우 나쁘다	1(0.5)
	나쁜 편이다	30(14.6)
	좋은 편이다	146(71.2)
	매우 좋은 편이다	27(13.2)
	무응답	1(0.5)
종교	종교 없음	39(19.0)
	개신교	75(36.6)
	불교	50(24.4)
	천주교	37(18.0)
	유교	3(1.5)
	기타	1(0.5)
학력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4(6.8)
	중학교 졸업	26(12.7)
	고등학교 졸업	80(39.0)
	대학교 졸업	73(35.6)
	대학원 졸업 이상	11(5.4)
	무응답	1(0.5)

〈표 2〉 주요 변인간 상관 관계

변인	(1)	(2)	(3)	(4)	(5)	(6)	(7)
내적 통제 귀인(1)	1.000	.191**	-.120+	.162*	.349***	.592***	.140*
외적 통제 귀인(2)		1.000	.145*	-.024	.114	.036	.115
활동의 요구 정도(3)			1.000	-.037	.067	-.061	-.029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4)				1.000	.069	.124+	-.070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5)					1.000	.225**	.028
일차적 통제 전략(6)						1.000	.212**
이차적 통제 전략(7)							1.000
평균	23.87	29.40	6.63	7.82	22.65	11.52	15.55
(SD)	(3.16)	(3.62)	(1.25)	(1.56)	(3.14)	(1.48)	(3.44)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활동의 요구-조절-지지 모델에 대한 내·외 통제 귀인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N = 205$)

변인	활동의 요구 정도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	
	β		β		β	
내적 통제 귀인	-.153*		.173*		.340***	
외적 통제 귀인	.174*		-.057		.049	
ΔR^2	.044		.030		.124	
R^2	.044		.030		.124	
F	4.571*		3.072*		14.305***	

* $p < .05$, *** $p < .001$

는 했으나, 7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41.5%로 상당하였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75.1%)'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사별'로 20.4%였다. 이전 직업에 대해서는 '전문직(28.3%)', '전업주부(23.4%)', '관리직(13.1%)', '사무직(12.6%)' 등의 순이었다.

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어려운 편이다'가 46.8%, '좋은 편이다'가 44.9%였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은 편이다'가 84.4%로 대부분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개신교(36.6%)'와 '불교(24.4%)'가 많았으며, '종교 없음'과 '천주교'는 각 19.0%, 18.0%였다.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9.0%, '대학교 졸업 이상'이 41.0%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전국 노인(통계청, 2008)과 비교해 보면, 전국 노인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이상'의 비율이 각각 8.0%와 5.4%에 불과해 본 연구 대상자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2.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경로 분석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에 앞서 독립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상관 계수가 그다지 높지 않아 분석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2).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는 1.696에서 2.064까지로 2에 근접하였다. 또

〈표 4〉 일·이차 통제 전략에 대한 활동의 요구-조절-지지 정도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N = 205$)

변인	일차적 통제 전략		이차적 통제 전략	
	β		β	
활동의 요구 정도	-.071		-.034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114+		-.069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	.207**		.031	
ΔR^2	.063		.006	
R^2	.063		.006	
F	4.461**		.421	

+ $p < .10$, ** $p < .01$

〈표 5〉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일·이차 통제 전략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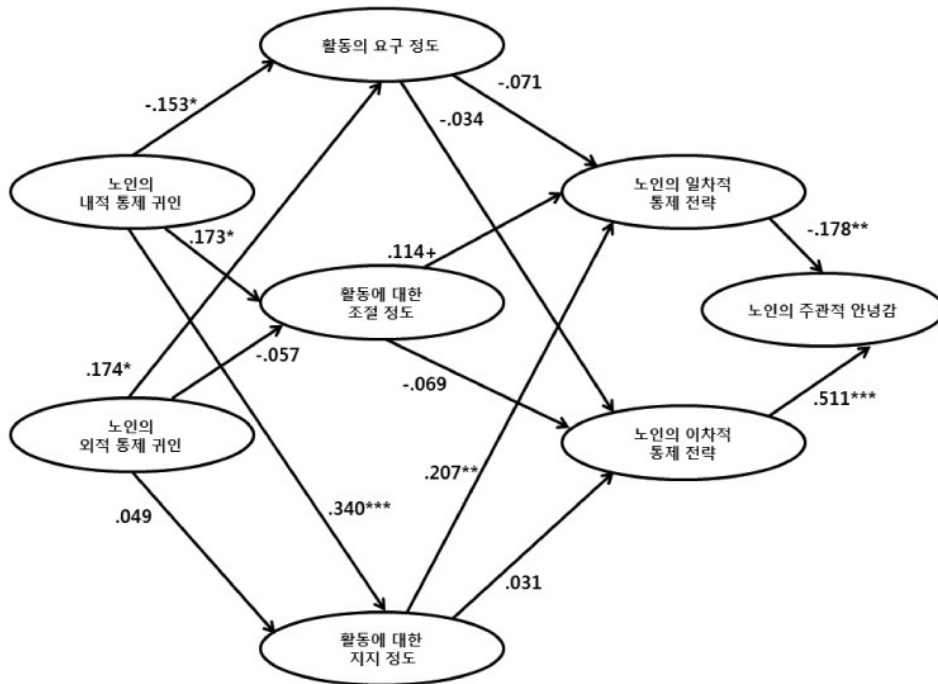
($N = 205$)

변인	주관적 안녕감	
	β	
일차적 통제 전략	-.178**	
이차적 통제 전략	.511***	
ΔR^2	.255	
R^2	.255	
F	34.500***	

** $p < .01$, *** $p < .001$

한 Eigen 값은 2.980에서부터 3.934로 15이하여서 회귀 분석을 이용한 경로 분석에 적합한 모형이었다.

단계별로 분석한 가설의 결과는 〈표 3〉, 〈표 4〉, 〈표 5〉와 같다.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활동의 요구 정도에



〈그림 2〉 경로 모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내적 통제 귀인($\beta = -.153, p < .05$)과 외적 통제 귀인($\beta = .174, p < .05$)으로 내적 통제 귀인이 적을수록, 외적 통제 귀인을 많이 할수록, 활동의 요구도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4%였다($p < .05$).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4>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는 내적 통제 귀인($\beta = .173, p < .05$)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내적 통제 귀인을 잘 하는 노인이 활동의 조절에 대한 권한도 많이 지각하여 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가설 2>도 지지되었다. 또한 내적 통제 귀인($\beta = .340, p < .001$)은 활동에 대한 지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환언하면 노인이 내적 통제 귀인을 할수록 활동에서 받는 지지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변인은 12%를 설명하였으며 <가설 3>도 지지되었다. 하지만 외적 통제 귀인이 활동의 조절이나 지지 정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와 <가설 6>은 지지되지 않았다.

활동의 요구와 조절, 지지 정도가 일차적 통제 전략과 이차적 통제 전략에 미치는 경로로서 먼저 일차적 통제 전략의 경우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beta = .114, p < .10$)와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beta = .207, p < .01$)가 유의한 변인이었다. 즉, 활동에 대해 조절도가 높다고 지각하는 노인은 일차적인 통제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 때 설명력은 6%였다. 따라서 <가설 8>이 지지되었다.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 역시 활동시 지지를 많

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일차적인 통제 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가설 9>도 지지되었으나, <가설 7>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지되지 않았다. 이차적 통제 전략이 활동의 요구도와 조절도, 지지 정도가 정적, 그리고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0>과 <가설 11>, <가설 12>는 지지되지 않았다.

노인의 통제 전략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일차적 통제 전략을 적게 구사할수록($\beta = -.178, p < .01$), 이차적 통제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beta = .511, p < .001$),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으며 설명량은 26%였다. 결과적으로 <가설 13>과 <가설 14>는 지지되었다.

이상과 같은 경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로 모델을 그리면 <그림 2>와 같다.

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매개 효과

다음 <표 6>에서의 결과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전체 인과 효과 크기는 이차적 통제 전략($\beta = .511$)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개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 경로는 내적 통제 귀인이었다. 내적 통제 귀인은 간접 효과($\beta = -.040$)와 직접 효과($\beta = .199$)의 영향이 모두 나타났으며 전체 효과는 $\beta = .182$ 로, 내적 통제 귀인에 의한 간접 효과는 22%를 차지하였다. 즉, 내

(표 6)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경로 분석의 인과 효과 분해 도표

변인	간접 효과	직접 효과	전체 효과
내적 통제 귀인	-.017	.199	.182
외적 통제 귀인	-	-	-
활동의 요구 정도	-	.196	.196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	-	-	-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	.037	-	.037
일차적 통제 전략	-	-.178	-.178
이차적 통제 전략	-	.511	.511

적 통제 귀인을 많이 하는 노인은 활동에 대한 조절 정도와 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를 매개로 하여, 자신이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많거나 활동에 대해 주위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경우 일차적 통제 전략을 주로 구사하나 이것이 주관적 안녕감은 낮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내적 통제 귀인은 직접적인 효과도 보였는데 내적 통제 귀인을 많이 하는 노인이 주관적 안녕감도 높다고 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고령 인구의 인력 활용에 재조명이 시급한 점을 반영하여 생산적 활동의 주체로서 노인을 접근하였으며,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효과를 조망하고자 외적 자극과 개인의 내적 반응의 기제를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 소재의 역할이다. 내적 통제 귀인의 소유자는 활동의 요구도가 높더라도 본인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조절이나 지지 정도도 높게 지각하여 Solomon 외(1988)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반면 외적 통제 귀인 성향의 노인은 활동의 요구 정도에만 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행동이 자신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 요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본인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활동의 요구도가 높을 때, 다시 말해 외부의 자극이 강하면 자신의 통제하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공받는 지지를 지각함에 있어서도 외적 통제 귀인을 하는 개인은 지지를 덜 받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에서처럼 (Lefcourt et al., 1984), 본 연구 결과에서도 관련성은 지지되지 않았다.

Park와 Folkman(1997)은 사건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상황에 대한 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통제감을 획득하려는

개인의 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Parkes, 1984),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건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적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적응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공존한다(Jind, 2003). 결국 외적 자극의 원인이나 상황 이해 능력은 개인의 귀인 성향에 따라 결과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인데, 본 연구 대상자의 내적 귀인은 전자의 결과에 근접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선민(2006)은 자아 개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내적 귀인을 하고 또한 역으로 개인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할수록 더 나은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가 뒷받침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내적 귀인을 주로 하고 이것의 매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적 통제를 주로 하는 것이 활동의 조절이나 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하게 하고 일차적 통제 전략을 고수하도록 고무시킨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활동의 상황적인 변인과 통제 전략의 관계에 대해 활동의 요구 정도는 노인의 일차적 통제 전략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대개 일반적인 노인의 경우 고령자이므로 활동의 요구도가 높을 경우 목표 수정없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노인 세대 중 비교적 사회인구학적인 면에서나 개인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활동의 요구 정도가 이들에게는 일차적 전략을 사용할 만큼의 부담으로는 작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반면 활동의 조절 정도나 지지 정도는 이들이 많다고 평가할수록 목표에 매진할 수 있으므로 일차 전략을 고수하기에 적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조절도나 지지 정도가 이차적 통제 전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연구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특히 교육형에 종사하는 노인들은 동일 연령대의 대상보다 적극적이고 성취지향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활동 수행에 있어 이차적인 통제 전략은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일차적 통제 전략과 이차적 통제 전략이 미치는 영향은 Heckhausen과 Schulz(1995)의 주장이나 광지현과 이민규(2006)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였다. 노인일수록 일차적 통제 전략보다는 이차적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그러한 경우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처럼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노년기에 근접할수록 증가하는 심리사회적, 신체적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통제 전략의 사용을 변화시키면서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노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는 성장과 성취가 이전 시기보다는 덜 우세하며, 생애를 점성적으로

통합하여 평가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므로 변화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면 문제의 원인을 내부로 귀인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그 상황내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정주리(2007)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Rothbaum, Weisz와 Snyder(1982)의 주장에서도 뒷받침되는데 개인이 능동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차적 통제보다는 사건의 원인을 종교나 운명에 귀인하여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현실을 수용하는 이차적 통제가 주관적 안녕감에는 보다 적합한 대처 반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동과 관련해서는 일차적 통제 전략이,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이차적 통제 전략이 우세한 것을 볼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어진 과업 달성에 대한 목표가 우선적이므로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의 통제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주관적 안녕감은 생애 전체를 포괄하는 평가이므로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후자의 전략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한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 참여시 노인의 내적 귀인 성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개인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증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때 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본 연구 대상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교육형' 활동은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비교적 전문직종에 근접하여 고학력의 노인들이 선호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일부 노인만이 참여할 수 있어 수적으로도 한정될 뿐 아니라 실제 이 일을 하는 노인 중에서도 본인이 기대했던 수준과도 차이가 있고 또 적성에도 맞지 않는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따라서 참여 의욕이 촉진될 수 있고 동기 부여가 가능하도록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활동이 마련되어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둘째, 활동에 대한 가족 지원의 역할이다. 가족은 가장 오래 지속되며 가장 친밀한 일차적인 사회적 관계망으로 개인의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재차 입증되었다. 이처럼 가족의 지지가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어느 시기보다도 노년기일수록 여전히 가족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임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시 가족 구성원이 정서적인 지원 뿐 아니라 정보나 교통 편의 제공 등 도구적인 지원도 병행하여 제공하는 것이 노년기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통제 전략의 활용에 관한 부분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차적 통제 전략 구사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으나, 활동에 관해서

는 일차적 통제 전략이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은퇴 후 적응 교육 프로그램이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 노인 생애 경력 개발 프로그램 고안시 이와 같은 심리적 기제를 교육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활용하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노년기 삶의 질을 고양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반에 대한 개선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와 고용의 중간 영역으로서 이와 같은 사업이 제안되어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일차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확대에만 급급한 측면이 있었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직종 보다는 단순반복적인 활동이 대부분으로 질적인 수준은 양적인 성장을 따라가지 못 하는 한계점이 지적된다. 이처럼 일자리의 질적 고도화 부족외에도 후속 관리의 취약성도 지적된다. 활동 초기 과정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작업을 하며,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나 직무 자체의 특성은 미처 고려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다. 앞으로 고령 사회의 도래로 인해 노인 인력 활용과 이들의 참여 욕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방면으로 참여자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사업의 계획과 제공이 요구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 대상의 학력 수준과 생활 수준이 중산층 이상이어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능동적 복지(Active Welfare)를 표방하는 현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노인 복지 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적 자본으로서의 가능성을 재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간과되었던 활동 자체의 특징과 함께 개인의 내적인 지각 양상과 대처 전략을 포함하여 이들의 삶에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박지현, 이민규(2006). 심리적 통제 전략과 안녕감간의 관계. **한국노년학**, 26(3), 565-580.
- 박정희(2003). 우리나라 노인 인력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2006). **노인복지 정책 추진 방향**. 서울: 보건복지부.
- 서양열(2004).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여름호), 31-51.
- 신동면, 양기근(2003). 고령화 사회의 노인 고용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11-128.
- 윤진(1995). 성공적 노화와 삶의 질: 한국 노인 대상 연구에서 고려할 측면들.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삶의**

질 심리학, 47-75.

- 윤희열(1996). 재취업 노인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민(2006). 대학생의 비학업 자아 개념과 귀인 성향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주리(2007). 삶의 의미 발견 과정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윤주(2008). 여성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고립 긴장과 완충 효과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91-107.
- 통계청(2006). **고령층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8). **2007년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9). **2009년 생명표 작성 결과**. 대전: 통계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7). **노인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8). **2008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Baltes, P. B., & Baltes, M. M.(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pp. 1-30). Cambridge U. K.: Cambridge Press.
- Barnett, R. C., & Brennan, R. T.(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3), 259-276.
- Beehr, T. A., & Drexler, J. A.(1986). Social support, autonomy, and hierarchical level as moderators of the role characteristics-outcome relationship.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7(3), 207-214.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4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ollard, M. F., Winefield, H. R., & de Jonge, J.(2000). Psychosocial job strain and productivity in human service workers: A test of the demand-control-support model.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3, 501-510.
- Eid, M., & Diener, E.(2004). Global judgments of subjective well-being: Situational variability and long-term stabi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65, 245-277.
- Fletcher, B., & Jones, F.(1993). A refutation of Karasek's demand-discretion model of occupational stress with a range of dependent measur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4), 319-330.
- Havighurst, R., & Albrecht, R.(1953). *Older people*. New York: Longmans, Green.
- Heaney, C. A., Price, R. H., & Rafferty, J.(1995). Increasing coping resources at work: A field experiment to increase social support, improve work team functioning, and enhance employee mental healt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4), 335- 352.
- Heckhausen, J., & Shulz, R.(1995). Life-span theory of control. *Psychology Review*, 102(2), 283-304.
- Herzog, A. R., & House, J. S.(1991). Productive activities and aging well. *Generations*, 15(1), 49-51.
- Jind, L.(2003). Parents' adjustment to late abortion, still birth or infant death: The role of causal attribution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4, 383-394.
- Johnson, J. V., & Hall, E. M.(1988). Job strain, work place social support, and cardiovascular disease: A cross-sectional study of a random sample of the Swedish working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8(10), 1336-1342.
- Karasek, R. A.(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 285-308.
- King, L. A., Mattimore, L. K., King, D. W., & Adams, G. A.(1995).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s: A new meas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s*, 16(3), 235-258.
- Lefcourt, H. M., Martin, R. S., & Saleh, W. E.(1984).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Interactive moderators of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2), 378-389.
- Lerner, D. J., Levine, S., Malspeis, S., & D'Agostino, R. B.(1994). Job strain and health-related quality

- of life in a national sampl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10), 1580-1585.
- Levenson, T. P.(1974). Activism and powerfu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8, 377-383.
- Markus, H. R., & Kitayama, S.(1991). Cultural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Park, C. L., & Folkman, S.(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30, 115-144.
- Parkes, K. R.(1984). Locus of control,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655-668.
- Parnes, H. S., & Sommers, D. G.(1994). Shunning retirement: Work experience of man in their seventies and early eighties. *Journal of Gerontology*, 49(3), 117-124.
- Peng, Y., & Lachman, M. E.(1994).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Cross-cultural and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13th Biennial Meeting of Institutional Society for the Society of Behavioral Development.
- Riddick, C. C.(1985). Life satisfaction for older female home makers, retirees, and workers. *Research on Aging*, 7, 383-393.
- Rothbaum, F., Weisz, J., & Snyder, S.(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5-37.
- Rowe, J. W., & Kahn, R. L.(198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23(7), 143-149.
- Roxburgh, S.(1996). Gender differences in work and well-being: Effects of exposure and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September), 265-277.
- Schaubroeck, J., & Fink, L. S.(1998). Facilitating and inhibiting effects of job control and social support on stress outcomes and role behavior: A contingency model.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2), 167-195.
- Seligman, M. E. P.(1990). *Learned Optimism*. New York: Knopf.
- Solomon, Z., Mikulincer, M., & Avitzur, E.(1988). Coping,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and combat-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2), 279-285.
- Theorell, T., Tsutsumi, A., Hallquist, J., & Reuterwaltet, C.(1998). Decision latitude, job strain, and myocardial infarction: A study of working men in Stockhol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 382-388.
- Van der Doef, M., & Maes, S.(1999). The job demand-control-support mode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ork and Stress*, 13(2), 87-114.
- Van Yperen, N. W., & Hagedoorn, M.(2003). Do high job demands increase intrinsic motivation or fatigue or both?: The role of job control and job social suppor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6(3), 339-348.
- Veehoven, R.(1991). Questions on happiness: Classical topics, modern answers blind spot. In F. Strack, M. Argyle, & N. Schwarz(Eds.), *Subjective well-being*(pp. 7-26). New York: Pergamon Press.
- Wall, T. D., Jackson, P. R., Mullarkey, S., & Parker, S. K.(1996). The demand-control model of job strain: A more specific tes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9, 153-166.
- Warr, P., Barter, J., & Brownbridge, G.(1983). On the independence of negative and posi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3), 644-651.
- Worch, C., Heckhausen, J., & Lachman, M. E.(2000).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strategies for managing health an financial stress across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15(3), 387-399.

접 수 일 : 2010년 4월 7일

심사시작일 : 2010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6월 28일